

38년간 신뢰 형성... 유기농 인증 안 받아도 소비자들 믿고 찾는다



③ 뉴욕의 똑똑한 도시 정책

② 스마트 마켓

30개 천막점포 사회적 기업 그린마켓이 운영
무엇보다 지역경제 위하고 농지 지키는게 목적
뉴욕 자치구 중심지 7곳 요일별로 장터 열려



운영위원회가 유기농 여부 등을 현장조사한 뒤 심의에서 통과한 농가들만 참여 가능하다. 현재는 모두 230여 개 농가가 등록돼 있다.



맨해튼 빌딩 숲 속에 자리한 유니언 스퀘어에서 월요일마다 열리는 유기농 시장. 38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이 시장은 사회적 기업이자 비영리단체인 그린마켓이 운영하고 있는 뉴욕시내 7곳의 시장 중 하나다.

최첨단 스마트 도시 '뉴욕'에도 시장은 있다. 맨해튼 빌딩 숲 속에 유기농 시장이 정기적으로 문을 열고 있다. 마트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지만, 38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높은 품질의 농산물을 공급하자 '단골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욕 맨해튼 한복판 유니언 스퀘어에 30여 개의 천막점포가 줄지어 있는 유기농 시장(Organic Market). 비영리단체이자 사회적 기업인 그린마켓(www.growncity.org)이 운영하는 이 시장은 1976년부터 시작했다.

시민에게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농부에게는 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를 위하고 농지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농지'를 지키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현재 브루스, 브록클린, 맨해튼, 퀸즈, 스타튼 아일랜드 등 뉴욕의 각 자치구 중심지 7곳에서 요일별로 장터가 운영중이며, 인근 200마일(약 322km) 이내 뉴욕, 코네티컷, 롱아일랜드,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등 5개주의 농가 230여 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 지역은 양파, 당근, 무 등 농작물이 잘 자라고,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농산물이 유기농 인증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오랜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서 도시 소비자들 믿고 찾고 있다.

제이미 게히링(Jamie Gaehring) 유니언 스퀘어 시니어마켓 매니저는 "오랜 기간 신뢰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시민들이 찾길 쉬운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시장이 형성되니 자연스럽게 농민과 소비자가 서로 원하는 것들이 거래됐다"고 말했다. 도시민은 안전하고 싼 농산물을 가까운 곳에서 살 수 있고, 농민은 판로 걱정 없이 질 좋은 농산물만 재배하면 되는 시스템이 정착된 것이다.

이 시장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시민 및 농민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있다. 이 위원회는 농지에서 발견되는 천연가스 등 자원을 둘러싸고 토지소유주와 지자체, 연방정부와의 갈등을 조정·중재하고 있으며, 정책 협의나 시장 참여를 원하는 농가의 심의까지 맡고 있다.

제이미 매니저는 "시작할 때는 중심지에서 범죄가 다수 발생하면서 찾는 도시민이 거의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

다"며 "지금은 그러한 어려움이 사라지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간은 뉴욕시청 공원과로부터 허가를 받아 제공받고, 수익은 거의 농민에게 돌아가도록 했다. 사회적 기업인 그린마켓은 텐트 임대료와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구조다.

뉴욕에서 2시간 정도의 거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조 브라이언(59)씨는 "25년 동안 농부로 일하며 마켓에 참여하고 있다"며 "유동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없는 소규모 농가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작업으로 허브, 감자, 사과, 자두 등 다품종을 소량 생산해 자주 바뀌는 도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 마켓에는 전북 정읍 출신인 한국인 여성 농민도 있었다. 노민자(여·44)씨는 14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나 미국에 와 함께 농사를 짓고 있다.

그녀는 현장에서 즉석 셀러드나 튀김요리를 선보이며, 다른 점포와 차별화하고 있었다. 1년에 무려 250~300개의 품목을 재배하면서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생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노씨는 "최근 한국에서 양파 가격이 폭락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수요를 감안하고 생산하는 미국 시스템에서 이처럼 무분별한 공급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품질만 인정된다면 쉽게 구할 수 있는 판로, 농민과 농지를 보호하겠다는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지자체 및 연방정부 등도 한국과 다른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린마켓에서 운영중인 시장 7곳 모두 참여하고 있는 그녀는 "주변 가족 농장에서 가족 분뇨를 건넌받아 비료를 직접 만들어 생산한 만큼 수익이 보장되니까 만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직원 5명을 쓰고 있는 어엿한 '대표이사'다. '단기간 보여주기식 직거래 장터'가 아니라 도시와 농촌, 도시민과 농민, 사회적 기업과 소비자가 협조체계를 구축하면서, 장기적이며 정기적으로 도시 중심지에서 개최되는 장터를 만들어 낸 것이 성공의 요인이라는 것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이 기획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도시 경관·역사성 중시하는 뉴욕



거리마다 그물망 설치 부상 예방

건물·장소에 '역사 알림판' 설치



뉴욕의 거리마다 그물망을 설치한 건물이 줄지어 있다. <사진 위> 대부분 1960·70년대 지어진 이들 건물 외벽 일부가 부식져 떨어지면서 행인들이 부상을 입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커'들이 줄소송을 내자 건물주들이 알아서 그물망을 설치, 부상을 예방하고 있지만 도시 미관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물주들이 이처럼 '임시방편'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뉴욕시 당국이 중심지를 제외한 지역 내 건축물의 경우 추수를 높이거나 외관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제약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즉 건물의 외형이 크게 바뀌는 것이 반복되면 뉴욕 전체의 경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도시 전체의 경관과 역사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책이다. 뉴욕에는 또 곳곳에 건물이나 장소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알림판이 설치돼 있다. 지금은 소호상점으로 바뀐 옛 방직공장의 경우 적색벽돌의 외관과 골격을 그대로 살리고 내부를 여러 공간으로 쪼개 다양한 점포와 음식점을 배치했다. <사진 가운데>

맨해튼 항구 초입에는 옛 항구의 사진과 그에 대한 설명이 가득한 '벽'이 있다. 맨해튼 항구의 시작은 1783년으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사진 아래> 당시의 사진과 신문 보도 등을 짜집기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KOMA INSTITUTE OF BUILDING ARCHITECTS
우수건축사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트라이슈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합코팅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밸런스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 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